



제목	이슬람주의와 마주 보기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울아카데미
발행일	2017. 2. 28.
저자	존 M. 오언 4세 이종삼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350
ISBN 또는 ISSN	978-8946059504

**내용 요약**

이 책은 2001년 9·11 이후 세계인들의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된 이슬람주의의 투쟁사와 과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이데올로기 투쟁사를 비교한 책이다. 여기서 ‘이슬람주의’란 정치 이슬람을 가리키며, 저자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을 이슬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저자에 의하면 이슬람주의는 1920년대 들어 세속화 사회에 살아가는 무슬림들에게 꾸란과 샤리아로 돌아가라는 호소의 일환으로 시작 되었다고 한다. 이슬람주의가 그들의 적대 세력들과 공존하는 과정에서 과거 서구의 이데올로기들과 유사해진다고 보는 저자는 서구 역사의 3대 이데올로기 투쟁(가톨릭 대 프로테스탄트, 군주주의 대 공화주의,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과 이슬람 역사의 2대 이데올로기 투쟁(수니파와 시아파의 투쟁,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갈등)을 비교 분석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반적인 주장을 한다. 첫째, 이슬람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세속주의와의 길고도 불확실한 투쟁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투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 역사 상 유사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기원, 역학, 궁극적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분석 수단으로 사용하여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투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교훈을 도출한다. 1)이슬람주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2)이데올로기는 단일체가 아니다. 3)외국의 개입은 통상적인 일이다. 4)국가는 합리적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일 수 있다. 5)승자는 어느 누구도 아닐 수 있다. 6)터키와 이란을 주시하라.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바로 이 여섯 개의 교훈을 설명하고 있다.